

46.3.8

서울시 여성채용 10% 실시

올해부터 7급행정직 50명중 5명...미달때는 추가 선발

서울시는 7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해 올해 시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인 7급 행정직 50명 가운데 10%인 5명을 여성으로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.

시는 이날 "국가공무원 임용령은 5·7급 공무원 선발시 정원의 10%를 여성으로 충원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"면서 "그러나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차원에서 시가 우선 국가공무원 임용령 수

준의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

시는 이에 따라 기술직을 제외한 7급 공무원 가운데 모집단위가 10명 이상인 행정직 50명 가운데 일반행정직 3명, 기업행정직 1명, 전산직 1명 등 5명을 여성으로 뽑을 계획이다.

시는 여성합격자가 선발 예정인 원의 10%에 미달할 경우 최종선발 인원수를 늘려 미달 인원을 추가 선발하되, 합격선에서 5점 이내에 드는 여성지원자가 없을 경우

에는 추가로 뽑지 않을 방침이다.

권오상 기자